



지난 1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지난 1일 취임식을 마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강진고등학교를 방문, 교육력 제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광주 미래인재 양성”...“전남교육 대전환 실현”

이정선 시교육감·김대중 도교육감 취임

혁신적 포용으로 변화·발전 주력

강진고 현장 방문...교육력 향상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4년간의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3일 광주·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오후 4시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각계 인사,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특히 이번 취임식은 12년 만에 광주 교육의 수장이 바뀌는 상징성을 감안해 교육공동체 구성

원들이 하나가 되는 공간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취임식은 크게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는 공식 취임 행사로 ▲취임선서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차관의 축하메시지 ▲강기정 광주시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다.

이 교육감은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새로운 광주교육을 열겠다”는 새로운 광주교육의 슬로건으로 취임사를 시작했다.

그는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혁신적 포용교육으로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교육정책에 담아 광주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며 “아이들의 미래, 광주의 미래

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AI를 비롯한 4차산업혁명 기술을 학교 교육에 도입해 에듀테크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고, AI 중점도시 광주에 걸맞게 지역 인재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미래교육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교육받으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대중 교육감도 취임 첫 현장 행보로 강진고등학교와 다산박물관을 찾아 당면 현안인 교육력 제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남교육 대전환’의 각오를 다졌다.

김 교육감이 첫 현장 방문지로 전남 농어촌 거점인 강진고를 선택한 것은 주민직선 4기 전

남교육의 핵심정책으로 천명한 ‘공부하는 학교’와 ‘교육력 향상’ 실현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남 학생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이루겠다는 의지도 나타났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후 강진고를 방문해 교직원, 학부모, 동문, 강진군의원 등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와 교육력 제고 방안, 진학지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 대책, 급식질제고 방안 등을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김병인 강진고 교장으로 부터 강진고의 최근 3개년 대학진학률이 90%가 넘는다는 설명을 듣고 “농어촌 학교도 교육력을 높이면 얼마든지 도시학교 못지않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어 참석한 교육가족들로부터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우수강사 확보, 대입전형제도에 대한 학부모 교육 필요성, 돌봄제도 내실화 등의 건의를 받고 공감과 함께 행·재정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입기를 시작한 첫날 강진고에 와서 교육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니 전남형 교육자치, 미래교육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도민과의 약속이 더욱 선명해진다”면서 “또한 도민 모두가 만족하는 탄탄한 전남교육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4년 간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교육공동체와 소통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최환준 기자

행복노인전문요양원과의 만남을 환영합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2010년에 설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요양기관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복노인전문요양원은 내 부모님이 편히 쉬 수 있는 집이라는 이념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년간을 노력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내 집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항상 곁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1. 식사, 세면, 양치, 면도 등을 포함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맞춤형 또는 전반적인 도움을 드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2. 의료기관의 연계 및 촉탁의사 방문, 약 복용 관리, 외래병원 관리 및 진료 등 어르신들의 질병 노출 및 예방에 힘쓸 것이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3. 간호처치, 물리치료 및 운동 치료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해드립니다.
4. 인지기능 프로그램과 여가프로그램, 개별적인 영양 보호를 위한 영양 관리 지원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케어에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에 따라, 신체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복노인전문요양원 문의. 062) 412-2000

NAVER 검색하기 학원114 등쳐보아요

신재생에너지 기술·제품 ‘한자리에’

‘SWEET 2022’ 6일 개막

신재생에너지인 풍력, 태양광, 수소 연료,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등 핵심기술과 제품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는 ‘SWEET(Solar, Wind & Earth Energy Trade Fair) 2022’가 6일부터 8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올해 16회째를 맞는 이번 전시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 코트라(KOTRA),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 주관하며, 30개국 250개사(500개 부

스)가 참가해 미래 에너지 생태계와 발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내 업체를 선도하는 유니스, 비에이에너지, 스키프라 등 대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태양광 셀, 모듈, 인버터, 발전시스템, 에너지안보 등 탄소중립을 실현할 최신 신재생에너지 제품과 솔루션을 전시한다.

또 한국전력공사는 홍보관 참가와 더불어 협력업체, 에너지밸리 협약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전력 동반성장관’을 구성하고, 부산테크노파크도 참가기업을 모집·지원해 공동관으로 참여한다.

한국남부발전 등 발전 6사는 태양광

(열),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약 60개 기업과 함께 ‘한국발전산업관’을 구성하고 에너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태양광발전협회 주최하는 ‘GPVC 2022(글로벌태양광컨퍼런스 2022)’ 등 에너지 분야 10건의 컨퍼런스·세미나도 동시에 개최된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주최하는 ‘동반성장페어’가 동시 개최돼 대기업 및 공공기관 기술·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간 1대 1 구매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윤현 기자

정기 브리핑

김승남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의원은 지난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의원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해수욕장에 장기간 텐트와 캠핑카를 설치 해두며 다른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교육기본법·평생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의원은 지난 1일 성인의 진로 교육을 보장하는 ‘교육기본법’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 인문사회 연구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법적 지원 등을 담은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진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 했고, 평생교육법 개정안은 직업능력 향상교육을 진로개발 역량 향상 교육으로 범위를 확장해 성인에 대한 진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